

Exploring factors affecting the academic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high school: Focusing on living environment factors

Kwan-Sook Kim*, Yong-Seob Kim**, Chi-Won Choi***

*Adjunc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rofesso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Visiting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social withdrawal, national identity, parental support, peer relationships, and teacher relationships affect the academic adjust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we used Latent Growth Model using the 7th, 8th, and 9th years of the Korean Youth Policy Research Institute'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the initial values and rates of change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academic adjustment model and their respective variances were significant. Second, the time-dependent variables, peer relationships and teacher relationships, were analyzed to be highly significant in all grades of high school. Third, the time-independent variables social withdrawal and parental support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both initial and rate of change. Based on our findings,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academic adjustment of multicultural youth.

▶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Academic Adjustment, Social Withdrawal, National Identity, Parental Support, Latent Growth Modeling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부모님의 지지 및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 7차, 8차,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다문화청소년 학업적응 변화모형초기치와 변화율 및 각각의 분산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시간 의존적 변수인 교우관계, 교사관계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시간 독립적인 변수인 사회적 위축과 부모님의 지지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학업적응,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부모님의 지지, 잠재성장모형

-
- First Author: Kwan-Sook Kim, Corresponding Author: Yong-Seob Kim, Co-authors: Chi-Won Choi
 - *Kwan-Sook Kim (gioconda33@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 **Yong-Seob Kim (yskim11@chosun.ac.k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 ***Chi-Won Choi (7won76@naver.com), Dep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25. 06. 09, Revised: 2025. 07. 08, Accepted: 2025. 07. 09.

I. Introduction

오늘날 한국사회는 경제 성장과 동시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와 1990년 후반 이후 국제결혼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다문화가정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2024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학생 수는 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3.8%(193,814명)로 초등학생(117,459명), 중학생(47,910명), 고등학생(27,673명), 각종학교(772명)에 재학 중이며 고등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1]. 따라서 차츰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다문화청소년이 학교현장에서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언어 및 문화, 정체성, 사회적 배제, 학업적응 등과 관련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다문화청소년은 부모의 각기 다른 민족적·문화적 배경에서 가져올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 이중문화적응 그리고 가정환경에서의 부모의 정서적 지지 부족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에서의 차별이나 소외 등 다양한 문제로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업 중 수행해야 할 학업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다[2]. 실제로 다문화청소년들은 비(非)다문화청소년들에 비해 주요 교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에서 저조한 학업성취 수준을 보여 전반적인 기초학력 수준이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3] 학교생활적응 중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욕구 및 가치, 흥미 등 내적인 요인과 부모, 가정, 학교 환경 등 외적인 요인들을 토대로 진학 및 취업 등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 탐색을 준비하는 시기로 학업적응은 더욱 중요하다[5]. 하지만 다문화청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진입할수록, 중학교에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낮아지고, 비(非)다문화청소년과의 학업성취 격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반면 김원경과 최필선(2023)은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교적응이 대학 진학을 목전에 둔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는 학업성적의 상승으로 나타나[7]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상기 정황들을 살펴볼 때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업적응은 다문화청소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횡단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발달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종단적 연구의 결과물은 미흡하였다. 종속변수인 학업적응은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성장 요인으로 종단적 방법을 사용하여 발달 변화를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따른 종단적인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탐색해 봄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Academic Adjustment

학업적응은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으로서 학교수업 참여,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노력, 수업 과제에 대한 해결 능력 등 학업적 요구에 맞게 조절하면서 대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 이처럼 학업적응은 단순히 학업성취도의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적 목표와 요구에 대한 태도, 학교학습에 대한 집중성과 지속성, 효과적 학업적 노력, 학습환경과 관련된 만족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9]. 그렇지만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생활 중에서도 학업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특히 한국어가 서툰 부모의 영향으로 적절한 언어습득과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학업적응의 어려움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인지적인 발달과 더불어 학교생활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미래 직업이나 삶의 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12].

2. Predictors of Academic Adjustment

2.1. Social Withdrawal

급격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발달이 급격하고 폭넓게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청소년은 가족, 교사,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학업적응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부딪칠 수 있는 어려움으로 불안과 우울을 겪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13].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비(非)다문화청소년에 비해 학교적응 과정에서 우울, 사회적 위축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심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14]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작용 감소 및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15].

이에 손유나(2022)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사회적 위축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16], 차한솔(2021)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사회적 위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17]. 이는 사회적 위축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뿐만 아니라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2. National Identity

다문화청소년은 이차 집단인 학교에서의 적응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11]. 청소년기에 진입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고민과 더불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민감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18]. 이와 관련하여 초·중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 연구에서 국가정체성과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같은 요인들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19].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가진 국가정체성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적응의 하위개념인 학업적응이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등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정체성이 학업적응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2.3. Parental Support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및 지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들은 활용 가능한 물질적 자원이나 정보체계 등의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긍정적 관심과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4]. 이에 홍나미와 박현정(2017)은 다문화청소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 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또한 독일 이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chachner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부모지지에 따라 학업적응 및 심리적 학교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1]. 이는 부모님의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여 학업적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Peer Relationship

청소년은 또래와 관계를 맺고 유지·발전시키면서 대인관계 감수성을 높여 협동심과 배려심을 발달시키게 되고, 추후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2]. 하지만 현재 다문화 청소년들은 사회적 발달과정인 교우관계에서 비(非)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이러한 교우관계의 갈등 문제들은 진학 및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박동진과 김송미(2021)는 다문화청소년의 원만한 교우관계의 형성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4]. 이처럼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성공적인 학업적응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 사회적응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교우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2.5. Teacher Relationship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부모나 교우관계뿐만 아니라 교사와 같은 사회적 지지도 다문화청소년에게 삶의 만족도를 높여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지대한 영향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5]. 교사는 청소년의 전인적 교육 및 학교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특정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과 세계관은 교사가 다문화청소년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26]. 이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학교생활과 학업적응 등 전반적 적응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다문화청소년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편견 및 부정적 시각을 줄여주므로 긍정적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27]. 이처럼 교사는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적응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와 교수법을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부모님의 지지,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대한 종단적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의 종단적 변화 추세와 개인별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부모님의 지지,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다음[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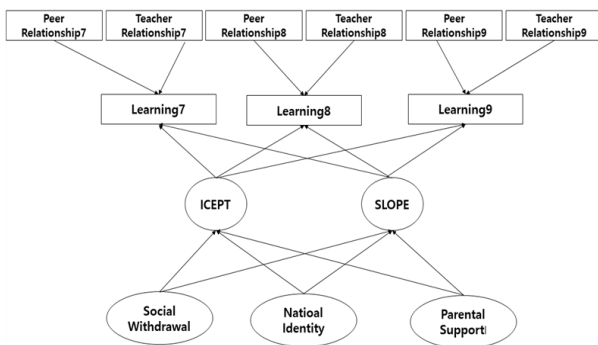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Research Problem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의 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변화추세는 어떠하며, 각기 개인별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부모님의 지지, 교우관계, 교사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Analytical Objects and Data

3.1. Analytical Objects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MAPS) 중 2017년 7차(고1), 2018년 8차(고2), 2019년 9차(고3)년도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 중 항목 무응답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대상자 1,138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3.2. Measuring Instrument

3.2.1. Academic Adjustment

학업적응은 김정남(2013)[28]의 학교적응척도 중 학업 영역 4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한 것으로 어려운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어 공부한다, 선생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

등 4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차년 .862, 8차년 .864, 9차년 .871로 나타났다.

3.2.2. Predictors of Academic Adjustment

3.2.2.1. Social Withdrawal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와 김경연(1998)[29]이 개발한 척도를 이경상 외(2010)[30]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수줍음, 부끄럼, 의견표명 등 5개 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차년 .909, 8차년 .911, 9차년 .908로 나타났다.

3.2.2.2. National Identity

국가정체성은 성한기(2001)[31]가 제작한 사회정체화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생각과 소속감 등 4개 문항으로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차년 .862, 8차년 .864, 9차년 .871로 나타났다.

3.2.2.3. Parental Support

부모님의 지지Ⅱ는 김의철, 박영신(1999)[32]의 부모지원 문항 중 일부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한 것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관심, 교육적 지원 및 기대 등 9개 문항 중 요인 적재량이 낮은 문항을 제거 한 7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차년 .916, 8차년 .924, 9차년 .926로 나타났다.

3.2.2.4. Peer Relationship

교우관계Ⅱ는 김정남(2013)[28] 및 황여정과 김경근(2006)[33]의 척도에서 발췌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친구들의 이해, 위로, 어울림, 존중 및 배려 등 4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차년 .909, 8차년 .912, 9차년 .911로 나타났다.

3.2.2.5. Teacher Relationship

교사관계Ⅱ는 민병수(1991)[34]의 학교적응척도를 수정·보완한 김지경 외(2010)[35], 황여정과 김경근(2006)[33], 유한구 외(2016)[36]의 척도에서 각각 1문항씩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의논할 선생님, 나에게 친절할 선생님, 좋은 선생님 등 3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7차년 .885, 8차년 .887, 9차년 .879로 나타났다.

4. 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의 종단적 변화 추세와 각 개인 간의 차이 및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AMOS 29.0 version을 통한 잠재성장모형(LGM)을 분석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두 변수 간의 선형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잠재 변수와 관측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를 검사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업적응 변화양상을 검증하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비교를 통해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다섯째, 개인 내 변화와 개인차의 존재 여부를 분석한 후 종속변수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독립변수들인 시간 의존적 변수와 시간 독립적 변수를 투입하여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IV. Empirical Analysi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본 연구의 대상자인 고등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최종 분석 대상자는 1,138명 중 여성은 579명(50.9%), 남성은 559명(49.1%)로 나타나 전체 성비 중 남녀의 비율이 대체로 1:1로 확인되었다.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업적응 평균은 3.47, 사회적 위축 평균은 2.39, 국가정체성 평균은 2.87, 부모님의 지지 평균은 3.98, 교우관계 평균은 4.02, 교사관계 평균은 3.85로 나타났다. 정규성 검토를 위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각각 1과 10이하로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echnical statistics

Variable	Mean	S.D	Skewness	Kurtosis
Academic	3.47	.757	-.386	.607
withdrawal	2.39	.725	-.208	-.385
national	2.87	.619	-.356	.708
parents	3.98	.663	-.260	-.127
peer	4.02	.693	-.336	-.186
teacher	3.85	.734	-.372	.248

변수들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학업적응은 사회적 위축($r=-.260$)과 유의미한 부적관계, 국가정체성($r=.255$), 부모님의 지지($r=.413$), 교우관계($r=.418$), 교사관계($r=.435$)에

는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위축은 국가정체성($r=-.177$), 교우관계($r=-.249$), 교사관계($r=-.177$)에 부적관계, 부모님의 지지($r=.188$)와는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국가정체성은 부모님의 지지($r=.292$), 교우관계($r=.247$), 교사관계($r=.294$)와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나타냈으며, 부모님의 지지는 교우관계($r=.416$), 교사관계($r=.437$)와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교우지지는 교사관계($r=.538$)와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는 <Table 2>과 같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the constructs

Variable	1	2	3	4	5	6
Academic	1					
withdrawal	-.260 **	1				
national	.255 **	-.177 **	1			
parents	.413 **	.188 **	.292 **	1		
peer	.418 **	-.249 **	.247 **	.416 **	1	
teacher	.435 **	-.177 **	.294 **	.437 **	.538 **	1

* $p<.05$ ** $p<.01$ *** $p<.001$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Analytical Results of Latent Growth Model for Academic Adjustment

측정지표들 간의 내적일관성과 집중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alpha)와 CR(개념 신뢰도), AVE(평균분산추출)를 산출하였다. CR값은 .5이상, AVE값은 .5이상으로 신뢰성과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또한 측정모형의 AVE 값의 제곱이 구성개념들 간 상관계수 값의 절댓값보다 커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업적응의 변화양상을 검증하기 위해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 비교 분석 결과,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χ^2 값이 14.235로 나타났으며, TLI=.991, CFI=.991으로 TLI와 CFI 값 모두 .90 이상으로 적합도가 좋고, RMSEA 값도 .057로 기준치인 .08 이하를 충족하였다. 연구모형은 [Figure. 2]와 같으며 분석 결과는 <Table 4>과 같다.

Table 3. Measurement model analysis result

Variable		Estimate		S.E	P-value	C.R	AVE
		B	β				
Academic	01	1.000	.682			.618	.865
Academic	02	1.031	.764	.045	22.751***		
Academic	03	1.119	.860	.045	24.929***		
Academic	04	1.144	.827	.047	24.270***		
withdrawal	01	1.000	.790			.668	.910
withdrawal	02	1.034	.841	.033	31.152***		
withdrawal	03	1.003	.789	.035	28.734***		
withdrawal	04	1.060	.864	.033	32.170***		
withdrawal	05	1.055	.800	.036	29.261***		
national	01	1.000	.845			.670	.890
national	02	1.002	.809	.032	31.399***		
national	03	1.067	.837	.032	32.856***		
national	04	1.039	.782	.035	29.993***		
parents	01	1.000	.849			.607	.913
parents	02	1.156	.897	.029	40.377***		
parents	03	1.172	.896	.029	40.274***		
parents	04	1.100	.808	.033	33.731***		
parents	05	1.078	.784	.034	32.159***		
parents	06	.678	.566	.033	20.553***		
parents	07	.671	.577	.032	21.058***		
peer	01	1.000	.900			.736	.917
peer	02	1.078	.885	.025	43.740***		
peer	03	1.047	.734	.034	30.723***		
peer	04	1.044	.902	.023	45.492***		
teacher	01	1.000	.798			.730	.890
teacher	02	.994	.911	.029	31.559***		
teacher	03	1.033	.851	.032	31.39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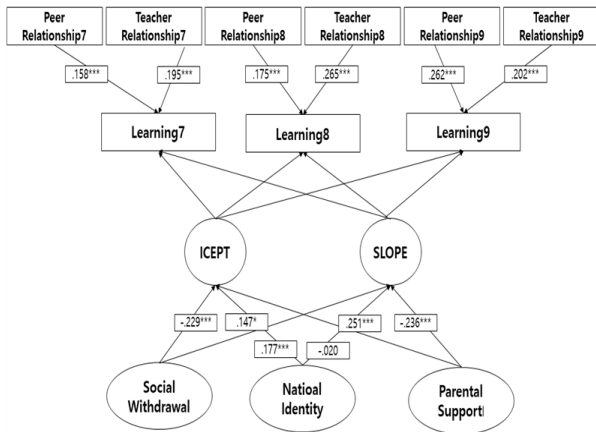


Fig. 2. Structural model analysis

Table 4. Academic Adjustment Structural Model Fit

Model	$\chi^2(df)$	P	CFI	TLI	RMSEA
monony model	57.298(6)	.000	.958	.979	.087
linear model	14.235(3)	.003	.991	.991	.057

<Table 5> 결과를 살펴보면, 학업적응 1차년도 초기치 평균이 3.459로 변량과 함께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응의 초기치가 학생 간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변화율 .047은 시간의 증가에 따라 학업적응이 .047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각각의 유의미한 분산 결과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초기치와 선형변화율과의 상관은 초기치가 높을수록 변화율의 변화가 낮은 것을 나타낸다.

Table 5. Growth Curve Parameters for Model of Academic Adjustment

	Mean	Variance
intercept	3.459(.022)***	.373(.024)***
slope	.047(.011)***	.030(.007)***
intercept-slope covariance	-.015(.010)***	

*p<.05 **p<.01 ***p<.001

3. A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on Academic Adjustment Changes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선형변화모형에 변인들을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최종 연구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799.962$, CFI=.969, TLI=.959, RMSEA=.045로 매우 유의미한 적합도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Verifying the Research Model

Model	$\chi^2(df)$	P	CFI	TLI	RMSEA
research model	799.962 (246)	.000	.969	.959	.045

시간 의존적 변수를 투입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과 교우관계, 교사관계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높을수록 학업적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교우관계는 7차 .158, 8차 .175, 9차 .262로 나타나 모두 학업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사관계 또한 7차 .195, 8차 .265, 9차 .202로 시기 모두 학업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학업적응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Growth Curve Parameter estimates for Academic Adjustment & Time variant variables

Path			β
learning7	←	peer relationship	.158***
learning8	←	peer relationship	.175***
learning9	←	peer relationship	.262***
learning7	←	teacher relationship	.195***
learning8	←	teacher relationship	.265***
learning9	←	teacher relationship	.202***

*p<.05 **p<.01 ***p<.001

시간 독립적인 변수들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적 위축과 부모님의 지지는 학업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정체성은 초기값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학업적응 초기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변화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적으로 위축된 다문화청소년은 학업적응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적응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님의 지지는 학업적응 초기값에 긍정적인 영향을, 변화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는 부모님의 지지가 초기 학업적응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정체성은 학업적응 초기값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정체성이 학업적응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사회적 관계와 가정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Growth Curve Parameter estimates for Academic Adjustment & Time invariant variables

Path			β
intercept	←	withdrawal	-.229***
slope	←	withdrawal	.147*
intercept	←	national identity	.117**
slope	←	national identity	-.020
intercept	←	parents support	.251***
slope	←	parents support	-.236**

*p<.05 **p<.01 ***p<.001

V. Discussion and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 7차(고1), 8차(고2), 9차(고3)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시간적 변화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변화궤적 및 독립변수들이 학업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잠재성장모형(LG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며 학업적응의 변화추세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학교와 달리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 시점에서는 학업성적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7]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어 고등학교 시점부터는 학업적응의 증가로 인해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유의한 변량은 다문화청소년의 각기 다른 개인차가 존재함을 나타내며 이러한 개인 간의 차이는 다른 환경과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대한 연구와 개입은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세심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우 및 교사관계와 같은 시간 의존적 변수들은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교우 및 교사관계 형성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상생활 중 학교생활의 비중이 많은 청소년들의 경우 교우 및 교사관계의 질에 따라 학업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24][25]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있어 교우관계가 교사관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교우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람직한 교우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적응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시간 독립적 변수인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부모님의 지지는 초기값에 모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사회적 위축이 낮고 국가정체성이 높으며 긍정적인 부모님의 지지가 높은 다문화청소년이 학업적응의 초기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독립적 변수가 학업적응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사회적 위축과 부모님의 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님의 지지에 따라 학업적응 및 심리적 학교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21]의 결과와 사회적 위축이 다

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학업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도출한 선행연구[16][17]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 자녀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 위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지지와 함께 충분한 대화, 정보 제공, 그리고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녀와 진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입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미래 진로에 대해 점차 준비해야 하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진학을 대비한 진로 탐색 및 기초학력 다지기, 학습 계획 수립, 대입 전략을 세운 학습 계획이 진행되어야 하며, 취업을 대비한 직업교육 및 체험,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입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향상을 위해 교우 및 교사관계 증진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 내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통해 교우관계 개선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등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뿐만 아니라 진학, 취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관심과 지지, 문화 다양성의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사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인 사회적 위축과 국가정체성, 부모님의 지지와 관련된 다각적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로서 자녀교육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위축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여러 환경 요인 중 언어 및 문화의 적응, 차별과 편견,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 선택의 어려움, 가족 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언어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심리 상담, 학교생활적응 및 진로 지원,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신과 다른 문화를 체험하도록 다문화 교육프로그램과 국가 간 가족연대를 위한 가족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계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 기관의 뒷받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1부터 고3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적응 변화양상 및 영향 요인들과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횡단적 시점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여 종단적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종단자료 분석 기간이 고등학교 1~3학년으로 제한하여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고등학교 3년 기간이 아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구모형의 간명성과 데이터 자료 자체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통제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기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Basic Education Statistics」, 2024
- [2] Cho, In-Je, "Institutional analysis for Multi-cultural schools in Korea :Multicultural pre-school(Korean Language Classes), special classes, and alternative school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4), 771-792, 2019. DOI: 10.24159/joec.2019.25.4.771
- [3] Mo, Sang-hyun, "Influences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Withdraw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Friend Factors", *Forum For Youth Culture*, 54, 67-93, 2018. DOI: 10.17854/ffyc.2018.04.54.67
- [4] Yu, Seung-hee,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related Factors, Achievement Motivation, and Learning Adaptation of High School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9(5), 229-254, 2020. DOI: 10.30974/kaice.2020.9.5.9
- [5] Super, D. E., Osborne, W. L., Walsh, D. J., Brown, S. D. & Niles, S. G, "Developmental career assessment and counseling: The C-DAC model",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1), 74-80, 1992. DOI: 10.1002/J.1556-6676.1992.TB02175.X
- [6] Park, Hee-Hoon, Oh, Sung-Bae, "A Study of School Adap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 *Korean Education Inquiry*, 32(2), 35-57, 2014. UCI: G704-SER000014634.2014.32.2.006
- [7] Kim, Won-Gyoung, Choi, Pil-sun, "Exploring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6(4), 1-22, 2023. DOI: 10.14328/MES.2023.12.31.1
- [8] Kang, Yu-Kyung, Han, You-Kyung "An analysis of variables influencing the academic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3) 61-88,

2015. UCI: G704-000614.2015.53.3.016
- [9] Baker, R. W. & Stryk, B,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 1984. DOI: 10.12691/education-6-9-13
- [10] Lim, Jeong-su, "The Effect of Mother's Korean Ability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ir Self-esteem",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4(3), 47-66, 2021. DOI: 10.14328/MES.2021.9.30.47
- [11] Kim, Seung-kyu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1-203", 2013.
- [12] Lee, Rae-Hyuck, Chang, Hae-Lim, "The Influence of Economic Hardship on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6(4), 17-26, 2018.
- [13] Soh, Soo-youn, Ju, Ji-sun, Cho, Eun-hi, Son, Young-min, Baik, Jeong-won "A Qualitative Study Exploring Adolescents' Experiences of Anxiety and Depression and the Recovery Proces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9(1), 229-254, 2021. DOI: 10.35151/kyci.2021.29.1.011
- [14] Kim, Min-Kyeong, "Relationship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tress, Depression, Family Resilience and Internet Game Addiction" *Korea Convergence Society* 7(1), 205-210, 2016. DOI: 10.15207/JKCS.2016.7.1.205
- [15] Rubin, K. H, Coplan, R. J, Bowker, J. C,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2009. DOI: 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42
- [16] Son, Yu-na, "Effect of Adolescents' Learned Helplessness and Social Withdrawal on School Adjustment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2022. UCI: I804:11048-000000184952
- [17] Cha, Han-sol, "Longitudinal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Social Withdrawal, and National Identity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10), 489-523, 2021. DOI: 10.21509/KJYS.2021.10.28.10.489
- [18] Lee Ji-yeon, Chung, Grace H, "The Influence of Discrimination and Coping Strategies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3), 336-362, 2016. DOI: 10.15709/hswr.2016.36.3.336
- [19] Lee, Hee-Jeong, "An Analysis on the Process of Identity Transformation and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in Korea's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2(1), 77-115, 2018. DOI: 10.21562/kjs.2018.02.52.1.77
- [20] Hong, Na-Mi, Park, Hyun-Jung,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Influence of Parents' Neglect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8(2), 125-151, 2017. DOI: 10.22836/kaswpr.2017.8.2.125
- [21] Schachner, M. K., Van de Vijver, F. J. R., & Noack, P., "Accultur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early-adolescent immigrant boys and girls in Germany: Conditions in school, family, and ethnic group",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8(3), 352-384, 2018. DOI:10.1177/0272431616670991
- [22] Choi, Sung-Yoon, "(The) Effect of peer relation on the Loneliness and Anxiety in early Adolescence" *The Educational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0.
- [23] Park mi-suk, Lee, mi-jung, "A Case Study on Causes of Conflict about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3), 149-174, 2014. DOI: 10.24159/joec.2014.20.3.149
- [24] Park, dong-jin, Kim, Song-mi,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n Academic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Transactions*, 9(2), 157-167, 2021. DOI: 10.22716/sckt.2021.9.2.022
- [25] Chang Yu-Jin, "Multicultural Adolescents' Profiles of Social Support and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Global Studies Education (GSE)*, 11(4), 26-51, 2019. DOI: 10.19037/agse.11.4.02
- [26] Ha, Hye-Suk, "The Counseling Strategies based on Analysis of Teacher's Bias toward Multicultur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6), 2065-2083, 2011. DOI: 10.15703/kjc.12.6.201112.2065
- [27] Hwang, Mae-Hyang, Ha, Hye-Suk, Kang, Ji-Hyeon, Yeo, Tae-chul, "Social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3(1), 71-96, 2014. UCI: G704-SER000003102.2014.13.1.008
- [28] Kim, Jeang-Na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 and High School Student-Short For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3), 497-517, 2013. UCI: G704-000523.2013.25.3.003
- [29] Kim, Sun-Hee, Kim, Kyong-Yeon,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4), 155-166, 1998.
- [30] Lee, Kyeong-Sang, Baek, Hye-jeong, Lee, Jong-Won, Kim, Ji-Young, Kim, Hyun-ju, Han, Young-geun,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I Project Repor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150, 2011.
- [31] Seong, Han-Gee, "Development of Korean Social Identification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15(3), 33-48, 2001. UCI: I410-ECN-0102-2009-180-005712644
- [32] Kim, Ui-Chol, Park, Young-Shin,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pattern of Korean adolescents : With specific focus on the influence of friends, family, and schoo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3(1), 99-142, 1999.

- [33] Hwang, Yo-Jong, Kim, Kyung-keun, "Determinants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general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2), 181-203, 2006. UCI: G704-001276.2006.16.3.016
- [34] Min, Byeong-su, "The Impact of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cept on Academic Achievement", Hongik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1.
- [35] Kim, Ji-kyung, Baek, Hye-jeong, Lim, Hee-jin, Lee, Kay-O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 Project Repor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240, 2010.
- [36] Yoo, Han-gu, Kim, Young-sik, Ryu, Ji-young, Shin, Dong-joon, Lee Eun-hye,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II",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1-424, 2016.

Authors



Kwan-Sook Kim received Ph.D. degree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21. Dr. Kwan-Sook Kim is currently a adjunc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educational welfare, special education, disability studies and social welfare policy etc.



Yong-Seob Kim received Ph.D degree in Education from Kyushu University, Fuhuoka, Japan in 2002. Yong-Seob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educational welfare, special education, disability studies and social welfare policy etc.



Chi-Won Choi received Ph.D. degree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22. Dr. Chi-Won Choi is currently a visiti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Public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olicy, Youth Welfare and Disabled Welfare, etc.